

정도를 원칙으로 삼는 성실인

수축필름 최고업체 성장 목표

김 일 섭 / 경원산업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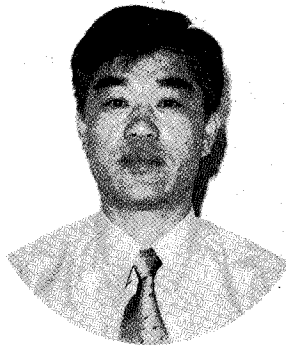
시 십년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필름생산 업계에서 불과 7년 만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경원산업,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일섭 이사는 오직 PE필름 분야만을 고집하고 있는 장으로서의 기질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현장 실무를 경험으로 품질이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93년 경원산업을 창립하는데 내·외적으로 힘을 쏟았던 김 이사는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수축필름 톱메이커로 자리하는데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정도만을 지켜왔다는 김 이사는 직원들과도 1:1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라는 데두리를 구성하며 가족들의 대소사를 빠짐없이 챙기는 안주인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런 그의 노력에 부응하듯 직원들이 땀땀 뭉쳐 작업에 임한 결과로 지난 IMF 때도 흑자를 내었고 최근에는 주문물량이 쇄도, 밤샘작업해도 손이 모자랄 정도라고 한다.

이 회사의 올 매출액은 45억원 정도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성실히 내실을 다지고 이익금은 시설을 완비하는데 재투자하여 유저의 만족을 도모함은 물론 직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경원산업은 현재 일본에 수축필름을 수출도 하고 있고 또 수출 시장 확대에 주력하려고 한다.

그동안 일본에 상륙하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기하려 했던 순간이 여러번 있었으나 한 번 하고자 한 것은 기필코 하고야마는 김 이사의 고집이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물은 감격 그 자체였다.

첫 번째 작품을 어렵게 완성한 김 이사는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며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건실함을 다져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시험장비 부족과 연구인력, 기술인력이 적어 최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을 빚었던 것이다.

최근들어 유저들의 주문쇄도는 이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그동안의 힘들었던 과정이

행복으로 바뀌는 보람을 만끽하고 있다.

이 때마다 김 이사는 스스로 밤을 새워 연구하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 내었다.

김 이사가 즐거움만을 간직하며 탄탄대로를 달려온 것은 아니었다.

창업 초기 설비 구입비용이 없어 주변에서 중고장비를 대여해 쓰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을 믿고 도와주었던 업계 지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실히 노력한 대가로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에게 보답하고 자신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 이사는 “어느 순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생활을 가져보지 못했던 만큼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잘 해 주겠다는 김 이사는 전 직원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올해는 자가 공장을 마련해 이전하고 자신도 공장 근처로 이사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할 생각이다.

이같은 노력이 성공해야 자신이 약속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만의 다짐 때문이다.

원칙대로 간다는 정도(正道)를 사훈으로 삼

고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그는 인(忍)·성(誠)·내(耐)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혹시라도 욕심을 부리거나 참아내지 못하면 정도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온 성실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이다.

김 이사는 “그동안은 동종업계에서 영업을 대신 해 주어 이 순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께 고마움을 표하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김 이사는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려움도 쉽게 넘기게 되고 좋은 일도 생겨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가족에게도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목숨이 자신과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려이고 있는
숨은 입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